



이익과 무역 거래가 공식 정부 용지에 사인을 하고 악수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는 간단한 사실을 묵인한 채 영국이 무역으로 인해 감당하게 될 손실 비용에만 집착하고 있다. 강압적인 정부기관 외에 두 사람 혹은 두 나라 간의 자발적인 상호이익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것은 없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드러난 많은 무역 문제들은 경제적 난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공포 분위기 조성 전술에 더 가까웠다. 이 현상은 “독립할 순 있지만 우리의 분노를 느끼게 될 거야”라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이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불확실성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역 거래는 상호이익적인 두 국가 사이에서 EU와 같은 더 큰 독재 정부의 힘을 저지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소동은 완전히 불필요하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 하자면, 만약 지난 주에 독일과 영국 두 나라 모두가 무역에서 이득을 봤다면 오늘 그들이 무역을 계속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계획이 불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독일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연합이라고 불리는 카르텔에 있다. 이 예시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영국의 독립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관여되어 있는 정책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유럽연합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투표로 인한 완전한 경제적 재앙이다. 즉, 그들의 위협과 공포 증식이 자기 충족을 야기하는 행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에도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주요한 세계 경제로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것은 유럽연합의 종식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브뤼셀 관료를 떠나는데 오직 미세하고 단기적인 문제들만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미 실패할 운명인 유럽연합에서의 탈출을 유발할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blog/why-all-post-brexithysteria>